

다윗의 위에 앉으신 메시아 예수님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3 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함에 있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하든지,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나셨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함에 있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깊고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이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에 성령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 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의 왕적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그러면 먼저 롬 1:3 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 임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 전도와 가르침의 최대 이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 : 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 교회 전도와 가르침의 최대 이슈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때엔 이것을 믿는 것은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기대했읍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메시아이길 바랬던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읍니다. 사람들은 실망이 대단했읍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는 세례의 조건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읍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한 베드로의 첫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 :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의 맨 초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 : 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온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먼저 메시아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쓰인 경로를 알아 보십시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 : 14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는 사울 왕을 가르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mashiyach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Christ, 우리 말의 그리스도는 헬라어 CHRIST 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영어로는 the God's anointed one.

2.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에게는 베레스와 셀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여러 씨족이 나누입니다. 유다 지파 안의 여러 씨족들 중에서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자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왕은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응답을 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짓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이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

사무엘하 7 :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 : 13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 :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13 절과 16 절에 있습니다.

13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 ---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 16 절에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는 말은,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말은, 육신적(physical)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왕국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 절에서 '네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한 말은 보이는 왕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왕권을 말합니다.

보이는 왕권이 아닌, physical 왕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과 그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메시아 왕국은 영적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이 physical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뚜렷해집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운 것은 주전 약 1000 년 전의 일입니다. 유대왕국은 주전 586 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700 년 경에 유대 왕국이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는 유대 왕국이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다윗왕의 11 대손인 무낫세가 왕위에 앉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왕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있는 이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을 다른 왕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으나, 그 당시의 왕인 무낫세에게는 이 말은 폭탄적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너 무낫세는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반역죄로 몰려 무낫세에 의해 톱으로 찢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세워질 메시아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영적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사야 35 :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영적 사역과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때부터 메시아 왕국은 영적 왕국임이 면면히 분명히 계시됩니다.

II. 다음은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는 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야가 와서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왕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맨 처음 사무엘에게서(사무엘상 16:13), 그후엔 유대 지파
장로들로부터(사무엘하 2:4), 그 다음엔 유대지파를 뺀 이스라엘로부터(역대상 11:3)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다스리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메시야이신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부음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 :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 :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처럼 왕으로서 영적 왕국을 통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오셔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인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하시면서 영적 왕국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 :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NASB)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이 세상 임금인 귀신을 쫓아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영적 왕국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시는 왕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지려면 메시아는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왕적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메시아의 왕적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왕노릇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왕노릇 합니까?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III. 신약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 :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선택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다윗왕은 육신적 선민을 다스렸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적 선민을 다스리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의 시민이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선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선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선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생활의 절대 원리입니다.

메시아가 나의 왕,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왕이 될 때 거기서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스리지 않는 왕은 없습니다. 왕은 언제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 하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정,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잘됨의 축복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강건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